



# 해외여행 자유화 20년 흥미로운 이슈 20

지금 젊은 세대에겐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관광 목적의 출국은 불가능했다.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려면 출장, 유학, 취업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했다.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는 여권이 아예 발급되지 않았다. 당시 여권 소지자의 상당수는 중동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들이었다.

전 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관광 목적의 출국 허용 연령 기준이 철폐되면서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시대가 개막된다. 이는 경제성장으로 국민 대다수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서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높아진 국제화 수준에 기인한 결과였다.

올해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지 20년 째이다. 그동안 누적 출국자 수가 1억 명에 육박할 만큼 해외여행은 이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 해외여행 자유화의 발자취를 20개 이슈로 정리해본다.

글 장성배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센터



### 1.매달 3만 원이면 해외 허니문 OK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되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여행사였다. 자고 나면 수십 개의 여행사가 새로 문을 열었고, 너도나도 해외여행 상품을 만들어 선보였다. 여행사 춘추전국시대가 열려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1990년 1월 15일 대한여행사는 '하루 1천 원의 투자로 시작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글랑플랜'이란 이름의 적립식 해외여행권을 출시한다. 월불입액 3만 원 기준으로 2개월 만에 계약고가 9억7천만 원에 달했다. 계약자 중 상당수는 미혼 남녀였다. 제주도나 설악산이 아닌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겠다는 다짐 속에 밥값과 교통비를 아껴 매월 3만 원을 적립했다.

### 2.떠나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빛장이 열리자 출국자 수는 급증한다. 1989년 사상 최초로 출국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 해외여행 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대학생들이었다. 연령제한이 폐지되자 방학을 이용해 연수와 배낭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급증했다. 1990년 9월 8일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20대의 해외여행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발표한다. 이 즈음 대학생 배낭여행을 소재로 한 영화, TV 프로그램, 여행서적 등도 봇물을 이룬다. 특히, 배낭여행 전문 여행사가 속속 나타나 대학가를 중심으로 치열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 3.도마 위에 오른 호화 해외여행

해외여행 자유화 초기에 일부 무분별한 여행객들이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 잦았다. 중국에서의 싸늘이 쇼핑, 동남아시아에서의 보신 관광과 성매매, 유럽 및 미주 등지에서의 추태 관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991년 7월 8일 사정당국과 국제청이 합동으로 상습 호화 여행자들을 파악,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과다 여행 경비에 대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발표한다. 또한 1991년은 관광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첫해로 기록됐다. 당시 한국 해외여행객 1인당 관광 비용은 미국이나 독일의 2배에 달했다.



### 4.아시아항공, 미주 노선 첫 취항

아시아항공이 1991년 11월 15일 서울-로스앤젤레스(LA) 노선에 취항한다. B747-400 기종을 투입, 주 3회 운항에 들어가 대한항공과의 복수 민항 경쟁체제가 본격화된다. 당시 서울-LA 구간은 국제 노선 중 최대 경쟁 노선으로 꼽혔다.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노스웨스트항공, 타이항공 등 4개 항공사가 직항편을 운항했다. 또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이 일본 도쿄 경유편을 운항해 승객 확보를 위한 요금 경쟁이 치열했다. 국제항공 운송협회(ATA) 가이드라인의 절반에 해당되는 요금까지 등장했다. 1992년 1월 이코노미클래스 요금이 타이항공은 412달러, 델타항공은 462달러, 노스웨스트항공은 474달러, 아시아항공과 대한항공은 각각 800달러 선이었다.

### 5.해외여행자 반공교육은 이제 그만!

1992년 6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소양교육이 폐지된다. 당시 여권 신청자는 한국관광공사 산하 관광교육원, 자유총연맹, 여지원 등에서 수강료 3천 원을 내고 하루동안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해외에서의 한국인 남북사례와 조총련 활동 등에 관한 안보교육 등을 받고 필증을 제출해야 여권을 손에 질 수 있었다. 한편, 소양교육 폐지와 함께 신원조회 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 5일이 걸리던 신원조사를 여권발급 신청 시 전산 확인을 거쳐 즉시 끝낼 수 있도록 했다.

### 6.입국 시 술은 1병, 담배는 1보루

관세청이 1993년 7월 1일부터 입국 시 면세 통과가 허용되는 기준을 성인 1인당 주류 1병(1ℓ 기준), 담배 1보루(200개비)로 제한한다. 1인당 허용 기준을 기존의 2병(7백60cc 기준), 2보루에서 절반으로 낮추며 내건 이유는 관광수지 적자 개선이었다. 하지만 양주, 양담배에 대한 한국 여행객들의 선호도가 높아 관광수지 개선 목표는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에 면세 통과된 주류는 299만3천 병으로 당시 국내 전체 양주 소비량의 약 18%에 달했다.

### 7.민족의 영지,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1994년 4월 1일부터 중국 여행이 전면 자유화됐다. 그동안 중국은 '북방교류협력에 관

한 기본지침'에 따라 특정 국가로 분류돼 사업목적이나 친지 방문, 학술 교류 등의 방문만 허용됐으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로 인해 홍콩 등 제3국을 통해 중국을 관광한 여행객들은 귀국 후 경찰서나 정보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에 대한 특정 국가 적용이 해제되자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중국 패키지 상품 판매가 날개를 단 듯 급증세를 보였다. 중국은 단숨에 미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은 제2위의 해외여행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 8.환전액 더 이상 여권에 적지 마세요~

1995년 1월 13일부터 한달 이내의 해외여행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비가 기존 5천 달러에서 1만 달러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한도가 월 5천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또 1996년 7월부터 해외여행을 위해 은행에서 환전할 때 금액을 여권에 기재토록 한 외국환관리규정이 환전증명서 발급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는 여권에 환전 금액을 기재함에 따라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현금 소지 사실을 노출시켜 여행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 출입국관리소에서 현금 과다 소지 이유로 입국심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 9.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해, 1997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7년은 한국 해외여행사(史) 최악의 해로 기억된다.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최고 2천 원까지 치솟아 해외여행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렸다. 배낭여행을 준비하던 대학생들과 해외로 허니문을 떠나려던 신혼부부들은 계획을 접거나 변경해야 했다. 여행사들 역시 해외여행객 급감과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다. 결국 그해 8월 중견 여행업체인 세진여행사를 시작으로 해외여행객 송출 1위인 온누리여행사, 유럽 배낭여행 전문 여행사인 씨에프랑스, 여행업계 6위인 삼흥여행사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진다.

### 10.더 이상 저렴할 수 없다! 방콕/파타야 19만9천 원

항공권 가격에도 못 미치는 초저가 덤핑 상품은 여행사간 과열경쟁의 산물이었다. 1997년 10월 계명여행사와 롯데관광 등 국내 30대 여행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건전관광추진위원회'는 달려와 폭등에 따른 해외여행 상품 가격 인상 등 대책을 논의한다. 하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한다. 이후 일부 대형업체들이 자급회전을 위해 초저가 상품을 쏟아내고, 중소기업들도 이에 가세해 여행사간 출혈경쟁은 더욱 심화된다. 결국 19만9천 원의 방콕/파타야 상품까지 등장, 소핑과 옵션에 의존하는 덤핑 상품 시대가 본격화된다.

### 11.해외여행의 새로운 검색어 '할인항공권'

'할인항공권'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은 1998년이다. 경기 침체로 패키지 상품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업체간 항공요금 할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다. 그해 1월 17일 현대드림투어는 단체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국내 최저 요금의 할인항공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다. 또 삼성그룹에 항공권을 독점 판매하는 세종여행사(현 세종나모)를 비롯, 대우와 LG그룹을 각각 맡고 있는 설악항공과 범한여행사(현 레드캡투어) 등도 할인항공권 판매체제로 전환해 본격적인 항공권 가격파괴시대가 열리게 된다. 현재 출발일 임박 항공권을 가리키는 '땡처리항공권'의 뿌리 역시 할인항공권이다.

### 12.하나투어, 여행업계 최강자로 등극

IMF 체제는 여행업계 판도를 일시에 뒤집어 놓았다. 1998년 해외여행객 송출 1위는 설립 5년차인 하나투어가 차지했다. 1996년 14위에서 불과 2년 만에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이는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감원 대신 고용을 유지하며 할인항공권 판매 시장 등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역발상 경영의 결과였다. 하나투어는 이후 지금까지 여행업계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으며 독주체제를 구축해오고 있다. 2000년 11월에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했다.

### 13.여행상품, 항공권, 호텔 예약을 인터넷 클릭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축적되고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항공권, 호텔, 현지 투어상품 등을 따로따로 구입해 여행을 떠나는 경향이 늘었다. 여행객이 직접 일정을 짜는 개별자유여행(FTT)이 확산된 것이다. 이에 맞춰 등장한 것이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 및 항공권 예약 사이트였다. 온라인 여행사는 1999년 인터파크, 투어익스프레스, 넥스투어를 시작으로 속속 등장해 춘추전국시대가 개막됐다. 또 호텔패스, 옥토퍼스트래블, RTS(리얼타임 트래블 솔루션) 등 호텔 예약 전문업체들이 등장해 FTT 시장을 넓혀나갔다.

### 14.인천국제공항 최초의 이·착륙 항공기는?

2001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다. 이날 인천공항의 2개 활주로는선 모두 348편의 항공기가 뜨고 내렸다. 인천공항 시대의 개막을 알린 첫 착륙 항공기는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3423편으로 오전 4시 45분에 도착했다. 또 첫 이륙 항공기는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으로 오전 8시 30분에 날아올랐다. 한편, 개항 당시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개항 직후 3개월간은 공항을 찾지 마세요'라는 공항 방문 자제 캠페인을 벌인다. 공항의 틀이 갖춰지기 전에 관광객이 몰려들 경우엔 통신장애, 시스템 다운 등 공항 기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 15.아시아의 악몽 - 사스, 쓰나미, 조류독감, 지진...

2002년 11월 16일 중국 광둥성에서 최초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아생동물에서 전이된 것으로 추정된 신종 전염병은 겨울에 들어서면서 홍콩과 베이징을 거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사스 발생 지역에 대한 여행 자제 권고가 내려졌고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약 반년에 걸쳐 시련기를 겪어야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종 집계한 사스 환자는 8천98명, 사망자는 774명이었다. 사스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에선 쓰나미(지진해일), 조류독감, 쓰촨 대지진 등이 잇따라 발생해 여행업계 전반에 그늘을 드리웠다.

### 16.출국자 1천만 명 돌파

연간 국민 해외 출국자가 2005년 사상 최초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그해 출국자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1천37만2천409명을 기록했다.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첫 해인 1989년과 비교하면 약 10배 증가한 수치였다.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출국자 수가 급증했다. 관광 목적 출국자만도 550만 명을 넘었다. 행선지는 중국이 28.7%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외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 대비 4.5% 늘어난 600만8천527명이었다. 그해 관광수지 적자는 약 62억 달러였다.

### 17.유류할증료는 누가 만들었을까?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탄력적으로 여객 운임에 적용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200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건설교통부는 유류할증료를 도입



해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 항공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가 갤런당 1.2달러 이상일 경우에 최저 2~4달러(단거리 2달러, 장거리 4달러), 갤런당 1.5달러 이상일 경우에 최고 15~30달러(단거리 15달러, 장거리 30달러)의 할증료를 각각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류할증료는 이후 유가 폭등과 고훈환율로 인해 2008년 9월 장거리 노선의 경우에 220달러 이상 치솟았다.

### 18.크루즈 여행시대 개막

미국 크루즈 선사인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RCI)의 랩소디 호(Rhapsody)가 2008년 4월 6일 부산항 국제 크루즈터미널에 입항했다. 최초의 한중일 크루즈인 랩소디 호는 4월 5일 일본 후쿠오카 항을 출항해 6일 부산항과 7일 제주항을 거쳐 중국 상하이 항으로 항해했다. RCI는 랩소디 호의 한중일 크루즈가 100% 예약률을 기록하자 7만급 호화 유람선 레전드(Legend of the Seas) 호를 아시아 투어에 연중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12월부터 부산, 요코하마,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을 모항으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다.

### 19.주한미국대사관 앞 줄서기 풍경은 역사 속으로~

무비자 미국 여행을 위한 여행 허가를 얻기 위해 이용해야 하는 미 국토안보부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https://esta.dhs.gov>)가 2008년 12월 17일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한국인 대상의 비자면제프로그램(WVP)은 2008년 11월 17일 시작됐다. 이로써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단기 여행의 경우에는 여행 전 전자여행 허가 사이트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 허가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으로 주한미국대사관 주변 줄서기 풍경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20.싸게 더 싸게, 저비용 항공사 국제선 취항

2009년 3월 20일 제주항공이 저비용 항공사로는 최초로 한일 노선에 취항했다. 일본 오사카와 기타큐슈를 동시 취항해 국제 항공사로는 세 번째로 국제선을 띄웠다. 인천-오사카 노선은 매일 1회, 인천-기타큐슈 노선은 주 3회 운항하며 왕복 요금은 인천-오사카 노선이 26만 원, 인천-기타큐슈 노선이 24만 원 정도로 정해졌다. 또 대한항공이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오는 10월부터 동남아시아, 일본, 중국 노선을 운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6월 1일부터 저비용 항공사로 전환하는 세퍼퍼시픽항공은 인천-마닐라 편도 요금을 4만 원에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R

